

# 독해 Reading process

글쓴이: no.9 Lewandowski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주는 속성을 ㉠ 본질이라고 한다. X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X에 대한 필요 충분한 속성을 찾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X에 대해 그리고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 ㉡ 예컨대 모든 까투리가 그리고 오직 까투리만이 핑이면서 동시에 암컷이므로, ‘암컷인 핑’은 까투리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암컷인 핑은 애초부터 까투리의 정의라고 우리가 규정한 것이므로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하기에는 허망하다. 다시 말해서 본질은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까투리라는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 1.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주는 속성을 본질이라고 한다.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하고 다른 대상과 구분해주는 속성을 본질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본질에 대한 정의입니다만 저에게 다소 추상적으로 다가옵니다.)
- 2.X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X에 대한 필요 충분한 속성을 찾으면 된다.  
(X에 대한 필요 충분 속성을 찾으면 X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 충분 속성? 잘 와 닿지 않습니다.)
- 3.다시 말해서 모든 X에 대해 그리고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 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  
(‘다시 말해’를 보고 2번 문장의 재진술임을 아셔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X에 대해 그리고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 필요 충분한 속성이겠구나.  
그럼 이것을 찾으면 X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 4.예컨대 모든 까투리가 그리고 오직 까투리만이 핑이면서 동시에 암컷이므로, ‘암컷인 핑’은 까투리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예컨대’를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예시입니다.  
무엇에 대한 예시일까요?  
네~ 3번 문장의 예시 즉 필요 충분 속성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럼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겠죠!  
까투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까투리에 대한 필요충분한 속성을 찾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까투리에 대해 그리고 오직 까투리에 대해서만 해당 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  
예컨대 모든 까투리가 그리고 오직 까투리만이 핑이면서 동시에 암컷이므로, ‘암컷인 핑’은 까투리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 5.그러나 암컷인 핑은 애초부터 까투리의 정의라고 우리가 한 것 이기에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하기에는 허망하다.  
(‘그러나’를 보시고 아~ 뭔가 뒤에는 이상한 얘기 해 주겠구나~  
예측 가능?  
암컷인 핑은 우리가 정의한 것이기에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하기엔 허망하다고 합니다.  
그럼 허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의한 것이 아닌 사후적으로 정한 것이 아닌 그런 걸 허망하지 않다고 하려나요?)
- 6.다시 말해서 본질은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까투리라는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네~ 재진술이죠? 무엇에 대한 재진술이죠?  
허망하다에 대한 재진술이죠?  
본질이란 것이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더 추론을 할 수 있지만 이쯤하고 넘어가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사 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본질주의는 ㉔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㉕ 반면에 반(反)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㉖ 이른바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 판단+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는 뒤에 구체적으로 서술해주겠죠?)

2. 본질주의는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본질주의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언가가 개체 내에 본질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3. 반면에 반(反)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반(反)본질주의를 보고는 아~ 분명히 본질주의랑은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가 다르겠구나~ 예측가능합니다.

그리고 '반'이란 표현에 주의하면 그럼 본질로서 존재한다에 반대

즉, 본질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인가? 생각해볼수도 있겠죠?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본질이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본질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하네요

4. 이른바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反)본질주의의 생각을 재정리해주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